■ 실속 재테크 '주택대출' 코픽스로 갈아탈까

CD금리보다 이자부담 적어
작년이후 대출자 환승 유리

올 9월까지 한차례… 수수료 없이 가능

새로운 대출상품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기준 주택담보 대출 시행된지 2개월이 다 되간다. 현재 각 은행 창구에선 코픽스 대출과 기존 양도성 예금증서(CD) 연동 대출을 함께 판매하고 있다.

대출자들의 고민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기존 CD연동으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도 8월~9월까지 한 차례에 한해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코픽스로 갈아탈 수 있지만, 장기 금융상황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간 고민스러운 게 아니다.

새로운 대출의 경우 현재까지는 코픽스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기존 CD 연동 대출자의 경우 코픽스로 갈아타는 것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은행권의 진단이다. 코픽스 지수와 맞물려 CD금리도 하향세를 타고 있어 장기적으로 금리의 유·불리를 가늠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신규 대출은 코픽스가 유리=최근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2월 잔액기준 코픽스는 4.10%로 전달의 4.11%보다 0.01%포인트 하락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도 3.62%로 전달보다 0.26%포인트 내려간 것이다. 이에 따라 이달 중에 새로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은 전달보다 낮은 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실제 광주은행에서 1억5천만원을 신규대출(6개월 변동 기준)했을 경우 코픽스(3.62%) 금리를 기준으로 가산금리(1.9%), 대출금리는 5.52%다. 여기에다 우대 금리 0.3%를 적용하면 한 달 평균 이자는 66만5천원이다.

반면, 현재 5.96%인 CD금리를 기준으로 하면 대출이자율은 5.66%로, 이자는 72만원이다. 신규 대출자라면 코픽스가 당연히 유리하다는 얘기다.

◇'갈아타기 신중해야'=은행권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코픽스로 갈아타는 게 유리한 대출자는 2009년 이후 대출받은 경우만 해당될 것으로 추정된다.

2006년 초부터 2008년 10월전까지 대출을 받았다면 이 시기는 현재(5.96%)와 달리 CD금리가 연 4~5%대를 유지하던 때다. 당시 은행들은 CD금리에 붙이는 가산금리를 1% 포인트 초중반까지 수준까지 낮췄다. 이후 CD금리는 급격히 떨어졌지만, 가산금리는 그대로다. 이에 따르면 이들이 현재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리는 연 3.89~4.43% 정도여서 굳이 코픽스로 갈아탈 필요가 없다.

더구나 올들어 두달 넘게 2.88%에서 머물렀던 CD금리는 이달 5일부터 떨어지기 시작해 12일 현재 2.83%를 유지하고 있다. 만약 CD금리가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면 코픽스와 CD금리 연동 대출 중 어느 게 유리한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도 예견되고 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현재로선 코픽스 기준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면서도 "장기적으로 CD금리와 코픽스 금리를 정확히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신규 대출자는 물론 기존 대출자들도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주요 은행 코픽스 금리(%·연)

은행	상품	최저	최고
제일	퍼스트홈론	5.08	6.18
국민	KB모기지론	4.44	6.04
외환	YES모기지론	4.91	6.13
우리	우리아파트론	4.48	5.90
하나	코픽스하나모기지론	4.43	6.03
씨티	코픽스연동대출	4.68	6.18
광주	Sweet Home론	5.17	6.62
농협	채움모기지론	4.51	5.76

〈은행연합회제공〉

"호남기업에 올 8000억 보증"

■ 광주 방문 안택수 신보 이사장 인터뷰

"남양 협력업체 유동성 적극 지원할 것"

"남양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등으로 경영난이 우려되는 광주·전남지역 협력업체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순회 간담회를 위해 13일 광주를 방문한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광주와 전남·북지역 남양건설 협력업체 72개에 대해 현재 620억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협력업체가 추가 유동성 지원을 희망하면 해당 은행의 패스트트랙(Fast-Track :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지원)을 신청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이사장은 "올해 신보는 호남지역에 8천억원 규모의 보증지원에 나설 예정이며, 이미 집행한 2천여원을 포함해 모두 4천억원대 보증을 상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인 광산업, IT, 친환경에너지, 전문디자인 산업에 모두 6천532억원을 지원, 지역산업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호남지역에서 모두 1천여개의 크고 작은 창업기업을 발굴, 664억원을 지원해 4천명 규모의 신규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도 추진된다. 전략은 '직원 일인당 1인 1사 창업지원 캠페인', '청년창업' '4050창업'(중장년 창업) 지원사업, '고용우대 시책' 추진 등이다.

안 이사장은 "지난해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액 가운데 무려 44.7%(8조8천여억원)가 신보의 보증을 토대로 한 보증조건부 자금이었다"며 "은행이 대출 리스크를 피하는 소극적인 대출관행에서 벗어나 기업·경제살리기에 동참하는 공적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의 보증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지역균형지원 전략을 추진한다고 소개했다. 지난해 호남권 보증잔액 비중이 전체 신보보증액의 7.7%(1조4천175억)를 기록했지만, 이를 오는 2013년까지 8.8%대까지 끌어올리고, 수도권-비수도권 보증비율을 50 : 50%수준에 맞추겠다는 것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농협, 서민·자영업자 금융 지원 확대

'생계형 사업' 최고 2000만원 최장 5년 대출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정종순)가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근로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13일 농협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지역본부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모두 3천290명의 금융소외자에게 210억원의 대출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둔 만큼 올해도 서민·자영업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무등록 영세자영업자 대출 상품인 '생계형 무등록 사업자대출'의 대출조건을 6.15% 수준 금리, 최고 2천 만원 이내에서 최장 5년까지 대출해준다.

또 대부업체의 고금리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상품인 'NH전환대출', '자영업자 사업 재기대출' 등의 수혜자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농협 광주지역본부 관계자는 "금융소외자 대출 서비스를 강화해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공적인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신용회복위, 오늘부터 '신용진단서비스'

신용회복위원회는 14일부터 개인의 신용상태를 체계적으로 진단해 개인별 수준에 맞는 해결 방안 등을 제시하는 '신용진단서' 발급 서비스를 개시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부채문제로 고민하거나 신용상담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진단하고 해결방법을 제공해주기 위해 신용진단서 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월 말 현재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834만명, 개인회생 등 각종 채무자구제제도를 이용한 채무자는 174만명에 달한다.

진단서에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 재무관리 역량 등을 감안해 신용상태를 개선하거나 악화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견이 제시된다. 자신의 신용 상태를 알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해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

光銀 더블찬스 예금 28일까지 한시판매

광주은행은 1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코스피200' 지수와 연계한 '더블찬스 정기예금 47호'를 한시 판매한다.

이 상품은 1년제로 코스피200 지수에 따라 최저 0%(원금보장)에서 최고 연 13.0%를 제공하고 만기 지수결정일까지 기준지수가 장중 1회라도 25%를 초과 상승시 연 4.0%로 확정되는 녹아웃(Knock-Out)형으로 최저 가입금액은 100만원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더블찬스 정기예금은 펀드 및 주식 투자의 위험을 피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